

# 圖書館文化

제45권 제9호(통권 제352호)

2004 09



ISSN 1225-5521

- **칼럼**
- **출장보고**
  -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특집**
  - 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장이다.
  -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운동 : 광진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 책읽는 병원 : 삼성제일병원 의학도서관의 "나누는 책소식"
- **도서관탐방**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을 다녀와서
- **인터뷰**
  - 서울문화재단 대표 유인촌
- **특별기고**
  - 참사서가 되려면
- **논단**
  - DDC에서의 한국, 조선 및 동해의 표기 문제
- **도서관인의 창**
  -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치유서란 무엇인가"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⑨**
- **해외도서관 사정 ⑨**
  -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대학교도서관
- **30년전 우리는 ⑨**
- **도서관분야 NGO를 찾아서**
  - 광주·전남지구협의회 / 프리유어북
- **우리 분야 새로나온 책**
- **통계로 보는 도서관계**
- **자료**

KLA

韓國圖書館協會

제45권 제9호(통권 제352호)  
KLA Bulletin:DOSEOGWANMUNHWA  
Vol. 45 No. 9(SEP 2004)  
Korean Library Association



<b>2 칼럼</b>	사서의 불안과 권익을 오늘도 내일도 주창만 할 것인가?	곽동철
<b>5 소식</b>		
<b>23 출장보고</b>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b>30 특집</b>	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장이다.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운동 : 광진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는 병원 : 삼성제일병원 의학도서관의 "니누는 책소식"	이만수 오지은 이성욱
<b>38 도서관탐방</b>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을 다녀와서	
<b>40 인터뷰</b>	서울문화재단 대표 유인촌	유인촌
<b>46 특별기고</b>	참사서가 되려면	이병목
<b>68 논단</b>	DDC에서의 한국, 조선 및 동해의 표기 문제	전창호
<b>74 도서관인의 창</b>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치유서란 무엇인가"	김정근
<b>78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b>	대중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르문학의 매력	한미화
<b>82 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①</b>	삶이 깃드는 도시 공간	김찬호
<b>84 해외도서관 사정 ①</b>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대학교도서관	김정심
<b>88 30년전 우리는 ① 1974년 9월</b>		
<b>92 도서관분야 NGO를 찾아서</b>	광주·전남지구협의회 프리우어북	김세빈 이정식
<b>94 우리 분야 새로나온 책</b>		
<b>96 통계로 보는 도서관계</b>		
<b>97 사무국일지/도서관계일지/신임회원명단</b>		
<b>100 자료</b> :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Express, 제1호		

**발행인** 신기남  
**편집인** 이경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편집실무**  
이용훈 | blackml@hitel.net  
박경아 | kapark@dreamwiz.com  
심효정 | shicap@hitel.net

**객원위원**  
이권우 | 도서평론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신60-1(137-702)  
**TEL** (02)535-4868  
**FAX** (02)535-5616  
**E-mail** w3master@korla.or.kr  
**URL** http://www.korla.or.kr  
**인쇄인** 열린애드 · E&C(02-540-1662)



〈표지사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도서관문화에 실린 글이나 사진, 도표, 그림 등은 발행인의 동의없이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녹음·확대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전재 또는 복제할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탐방

영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공간, 국내 최초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을 다녀와서

대학원대학교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원대학교로는 예전에는 신학대학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문화된 대학원대학교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이외에도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총장 文龍)는 '윤선생 영어교실'로 유명한 현대영어사(학교법인 학재학원, 이사장 尹均)가 영어교육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2002년 9월 개교하여(영어지도학과 26명, 영어교재개발학과 26명), 2004년 8월 제1회 졸업생 37명을 배출하였다. 입학생 전원에게 대해 4학기 전액 장학금이 수여되며,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인근 위치.



〈학교 본관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서관 건물 입구. 9층 건물 중 13층이 도서관〉



〈도서관 1층. 8천여점의 영어교육 관련 전문 도서와 33종의 해외 영어교육 전문 저널 구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은?

9층 짜리 빌딩(왼쪽 사진)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이하 '대학원도서관')의 안내데스크다. 도서관탐방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최정민 사서의 안내로 자리에 앉아 서가를 보니 일반 종합대학들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영어교육 관련 전문 장서만을 보유하다 보니 한국심진분류표(KDC)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류표에 의해 서가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자체분류표 방식이 궁금하여 보았으나, 영어전문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글이 하나도 없다.)

1만 3천여점의 영어교육 관련 전문 도서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원도서관은 국내저널 20종 이외에 TESOL Quarterly(1990~2004), IRAL(1980~2004), ELT Journal(1981~2004) 등 33종의 해외 우수한 영어교육 전문 저널을 지난 것(백이슈)까지 구비하고 있어 영어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 연구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총 9,386편의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박사학위 논문 203편, 석사학위 논문

4,624편, 연구 논문 4,559편)의 목록검색이 가능하다.

대학원도서관은 본교 재학생과 영어교육 관련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에게는 개방되지 않는다(영어교육 관련자의 경우도 소정의 금액(5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개관), 방학 중에는 오후 4시 반까지 열고, 토·일요일, 국경 공휴일, 개교기념일에는 휴관한다.

■ 도서관 층별 배치

1층	자료검색실, 멀티미디어자료 및 열람실, 영어교재전시실, 정기간행물실, 서가, 개기열람실, 복사실
2층	컴퓨터강의실, 학습실, 녹음실
3층	관장실, 회의실, 세미나실, 협의실

대학원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 최초로 영어교재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국내외에서 출판된 영어교재 1천7백여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영어교재 전시실의 교재들은 본 도서관의 뜻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국내외 유명 출판사의 기증에 의해 모아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 대학은 전체 정원이 100명뿐인 국내 최초의 초미니 영어 전문 대학원대학교입니다. 이론으로 무장하고 영어로 능숙하게 실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도서관도 영어교육 전문 대학원의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영어교육에 관한 한 국내의 어느 대학 도서관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김영우 관장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5년 간 1만5천여 점의 양질의 교재들로 장서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최근 교육 현장에서 기술의 적용, 특히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적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우리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제 도서관 개관 2주년을 맞이한 만큼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대한 선배 도서관의 경험을 적극 배울 예정입니다.” 올 해 5월 취임한 김영우 관장(사진, 영어교재개발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며,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휴직한 중·고등학교 교사도 있다. 52명이 입학했지만 37명만이 졸업할 정도로 학생들의 학업열 못지 않게 교육과정의 강도 또한 높다. 대학원도서관에는 사서 1명, IT 관련 전공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온갖 영어교재가 범람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계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가 신선한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지원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제 두 돌을 지낸 대학원도서관, 작지만 알찬 내용으로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자리를 착실히 쌓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글: 박경아 기획·홍보팀장, 사진: 심효정)



〈멀티미디어열람실 및 정기간행물실〉



〈컴퓨터강의실〉



〈학습실. 개인 사물함 1인1칸 설치〉